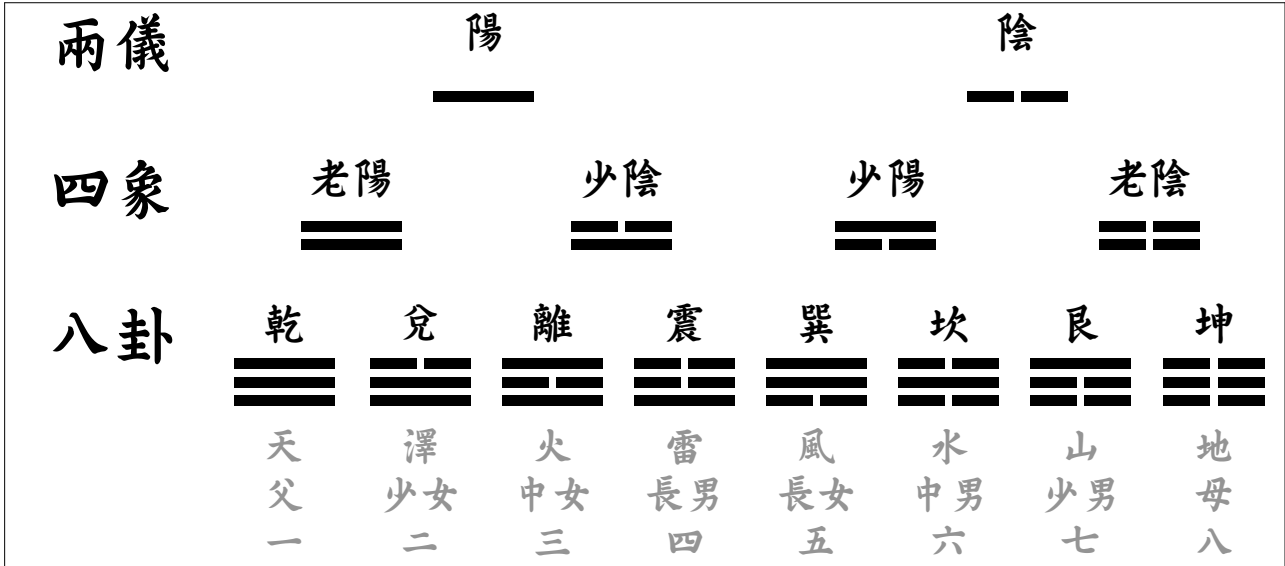


周易六十四卦要略

八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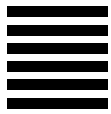


爻의名稱과意味(蒙卦를 例로 들어)

	〈順序〉	〈名稱〉	〈意味〉	〈屬性〉
	1·3·5爻=尊位 2·4·6爻=賤位	陽爻=九 陰爻=六		
外卦	6爻 天	上九	上王 國師	卦가 끝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(事)이 없음. 사안이 끝나고 일을 그만 두는 시기로 1爻와 동일하게 자리가 없음.
	5爻 人	六五	帝王	가장 尊貴한 곳임. 외부적인 상태로 볼 때는 절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.
	4爻 地	六四	宰相 大臣	君王의 바로 밑에 있는 좋은 자리. 어떤 상황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는 일이 무르익는 시기.
內卦	3爻 天	六三	地方長官	君王에 가깝지는 않지만 尊貴한 자리. 內卦의 가장 위에 있어 상황이 변하여 위험해질 수 있는 곳으로, 경솔하면 凶을 불러옴.
	2爻 人	九二	下級官吏	3·4爻보다 아래에 있으나 지위가 있는 爻. 內卦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내부적인 상태를 볼 때는 가장 좋은 곳임.
	1爻 地	初六	百姓	卦가 지식하는 자리로 일(事)이 없음. 막 시작하는 곳이고 싹이 트는 시기이며 어떤 임무를 맡을 처지가 안 됨.

※ 卦의 각 爻 중 1⇔4, 2⇔5, 3⇔6 爻는 서로 相應한다. 이 때 각 爻가 陰⇔陽 또는 陽⇔陰으로 만나는 경우를 '正應한다' 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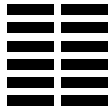
1



重天乾

두개의 소성괘들이 겹쳐서 모두 하늘을 상징하는 건괘이다. 따라서 여섯 효(爻)가 모두 양(陽)으로, 64괘 중 가장 강하고 튼튼한 괘다. 만물의 근본인 하늘과 아버지를 상징한다. 속성은 '위대하다' · '크게 통한다' · '굳세다'라는 뜻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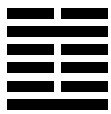
2



重地坤

모두 땅을 상징하는 곤괘가 겹쳐서 구성되어 있다. 여섯 효(爻)가 모두 음(陰)으로 만물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땅과 어머니를 상징한다. 속성은 '순응하다' · '지극하다'라는 뜻이다.

3



水雷屯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우레[雷]다. 준(屯, 원래 둔)은 '진치다' · '막히다' · '고민하다'라는 뜻이다. 비가 내리고 천둥이 진동하는 상이니, 새싹이 눈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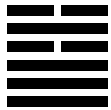
4



山水蒙

위의 괘는 산[山]이고, 아래 괘는 물[水]이다. 몽(蒙)은 '어리다' · '어리석다'라는 뜻이다. 시작의 상(象)이며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. 그래서 교육과 연관된 몽(蒙)자를 괘의 이름으로 하였고, 계몽(啓蒙)이라는 말이 또한 여기서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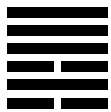
5



水天需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수(需)는 '기다리다' · '기대하다'라는 뜻이다. 운무가 자욱한 상으로 물러서서 기다려야 할 때를 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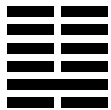
6



天水訟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송(訟)은 '다툼' · '소송' · '재판' 등을 뜻한다. 하늘 아래에 물이 넘치는 상이니 욕심이 지나쳐 마찰과 갈등이 생기고 대립 · 항쟁하는 형상으로, 괘 이름을 송(訟)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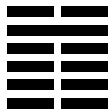
7



地水師

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사(師)는 '선생' · '군대' · '거느리다'라는 뜻이다. 땅 밑으로 물이 모이는 상이니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을 상징하므로, 통솔한다는 의미에서 사(師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8



水地比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비(比)는 '견주다' · '비교하다' · '인화(人和)'를 뜻한다.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 내를 이루고 힘을 합친다.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집단을 이루어 서로 돕고 협력하므로, 비(比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9



風天小畜

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축(畜)은 '기르다'·'저축하다'라는 뜻이다.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이니, 비가 내리기 전의 상황을 상징한다. 비가 오면 생명체는 그 비를 저장한다. 까닭에 저축한다는 의미로 축(畜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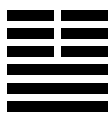
10



天澤履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이(履)는 '밟는다'·'따른다'·'예절'이라는 뜻이다. 하늘 아래 저수지가 있으니, 지나침과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워 예절을 나타낸다. 의식(衣食)이 풍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에서 이(履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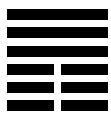
11



地天泰

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태(泰)는 '크다'·'크게 통한다'·'태평하다'라는 뜻이다. 땅의 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와 서로 조화를 이룬다. 서로 크게 통한다는 의미로 태(泰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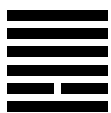
12



天地否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비(否)는 '막히다'·'답답하다'라는 뜻이다. 하늘은 하늘대로 위에 있고, 땅은 땅대로 아래에 있다. 천지 화합이 일어나지 않아 막혀 있는 상태다. 답답하다는 뜻으로 비(否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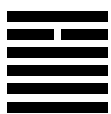
13



天火同人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동인(同人)은 '뜻을 같이 한다'·'협력'이라는 뜻이다. 어두운 하늘 아래 불이 타오르며 세상을 밝히는 상이다. 즉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얻은 상이다. 세상을 밝히는 일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하므로 동인(同人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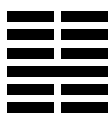
14



火天大有

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대유(大有)는 '크게 만족하여 즐거워하는 상태'를 말한다. 하늘의 불인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추는 상이다. 즉 해가 중천에 떠 빛나는 상이니, 천하를 소유한다는 의미의 대유(大有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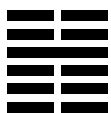
15



地山謙

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겸(謙)은 '겸손'·'겸양'으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는 뜻이다. 높은 산이 땅 밑에 파묻힌 모습이다.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는 상이므로 겸손하다는 의미에서 겸(謙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16



雷地豫

위는 우뢰 천둥[雷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예(豫)는 '예측한다'라는 뜻이다. 땅 위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내리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, 예(豫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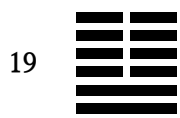
澤雷隨

17 위는 연못[澤]이고, 아래는 우레 천둥[雷]이다. 수(隨)는 ‘따르다’ · ‘순종한다’라는 뜻이다. 수동적이며 종속적인 의미다. 하늘에서 진동해야 할 우레가 연못 아래 있으니, 꼼짝 못하고 연못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(隨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山風蠱

18 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고(蠱)는 ‘벌레’ · ‘벌레가 나뭇잎을 갹아먹는다’는 뜻이다. 어려운 일을 뜻한다. 산밑에 바람이 머물고 있으니, 공기가 혼탁하여 부패하기 쉽다. 더러운 벌레가 생기므로, 고(蠱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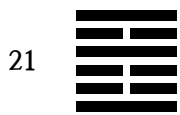
地澤臨

19 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임(臨)은 ‘순서를 밟다’ · ‘군림하다’라는 뜻이다. 땅속에 물이 가득하니 곧 새로운 시작에 임한다는 뜻에서 임(臨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여러 사람 위에 있는 지도자 상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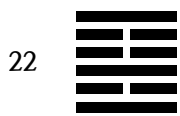
風地觀

20 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관(觀)은 ‘살핀다’라는 뜻이다. 땅위에 바람이 불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. 이러한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(觀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火雷噬嗑

21 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천둥 우레[雷]다. 서합에서 서는 ‘씹다’라는 뜻이고, 합은 ‘입을 다물다’라는 뜻이다. 그러므로 서합은 ‘음식을 입안에 넣고 씹는다’는 의미다. 불과 우레가 만나면 천지를 진동하니, 격렬한 언쟁과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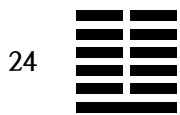
山火贲

22 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비(贲)는 ‘꾸미다’ · ‘장식하다’라는 뜻이다. 산아래 불이 있음은 해가 서산에 기울어 찬란한 황혼 노을을 나타낸다.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의 비(贲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겉치레만 하느라고 실속이 없다.



山地剝

23 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박(剝)은 ‘벗기다’ · ‘빼앗다’라는 뜻이다. 산이 땅위에 우뚝 솟아 있으니, 비바람에 깎여 벗겨지고 상처를 입는다는 뜻에서 박(剝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.



地雷復

24 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우레 천둥[雷]이다. 복(復)은 ‘돌아오다’ · ‘회복하다’라는 뜻이다. 땅 밑에서 천둥 우레가 울린다는 것은 땅 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으므로, 복(復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곧 성공할 운을 맞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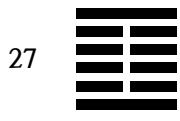
天雷无妄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천둥 우레[雷]다. 무(无)는 ‘없다’라는 뜻이고, 망(妄)은 ‘허망하다’는 뜻이다. 하늘에 천둥이 울리니 머지 않아 비가 오겠지만 당장은 아니다. 초조하지 말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.



山川大畜

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대축(大畜)은 ‘크게 쌓다’·‘많이 모이다’라는 뜻이다. 하늘 위로 산이 높이 솟아 오른 모습이다. 크게 축적된 상이므로, 대축(大畜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새로운 변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.



山雷頤

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천둥 우레[雷]다. 이는 ‘턱’·‘기르다’·‘봉양하다’의 뜻이다. 산아래 천둥 우레가 진동하는 상이다. 무언가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므로, 생명을 기른다는 의미의 이(頤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澤風大過
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대과(大過)란 정상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 ‘지나치다’라는 뜻이다. 잔잔한 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크게 일어난다.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났으니, 지나치다라는 뜻에서 대과(大過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重水坎

위도 물[水]이고, 겹쳐서 아래도 물[水]이다. 물이 겹쳐 있으니, 수(水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두 소성괘 모두 두 음효 중간 구멍이 양효가 빠져있다. 모든 일은 지나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. 실패, 좌절, 파산, 병고 등의 어려운 일을 뜻한다.



重火離

위도 불[火]이고, 겹쳐서 아래도 불[火]이다. 불 두 개가 겹쳐 있으니 화(火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불 두 개는 태양을 상징하며, 정열과 왕성한 의욕을 뜻한다.



澤山咸
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함(咸)은 감(感)과 같은 뜻으로 ‘느낌이 좋다’는 의미이다. 젊은 여자를 상징하는 태(兌)괘 아래 젊은 남자를 상징하는 간(艮)괘가 있다.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감상적인 의미의 함(咸)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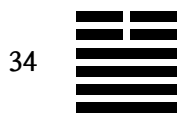
雷風恒

위는 천둥 우레[雷]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항(恒)은 ‘변함이 없다’·‘한결 같이 계속 된다’라는 뜻이다. 장남이 장녀 위에 있다.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상이다. 그 법도가 한결 같다는 뜻에서 항(恒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天山遯
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둔(遯)은 ‘피하다’·‘물러나다’·‘은둔하다’라는 뜻이다. 산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하늘 아래 있다. 이제 물러나라는 뜻에서 둔(遯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雷天大壯

위는 천둥 우레[雷]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대장(大壯)은 ‘힘차다’·‘성대하다’·‘씩씩하다’라는 뜻이다. 하늘 위에서 우레가 움직이고 있으므로 힘차고 씩씩하다는 뜻에서 대장(大壯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火地晉

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땅[地]이다. 진(晉)은 ‘나아가다’·‘전진하다’라는 뜻이다. 불인 태양이 지상 위로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진다. 나아가간다는 의미에서 진(晉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地火明夷

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이(夷)는 ‘상하고 깨지는 것’이므로 명이(明夷)는 ‘밝은 것이 상하고 깨진다’는 뜻이다. 태양이 땅 아래 잠겨가고 있다. 어두움이 온다는 뜻에서 명이(明夷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해가 서산에 지는 상이다.



風火家人

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가인(家人)은 ‘집을 지키는 사람’을 뜻한다. 위는 장녀(長女)고, 아래는 중녀(中女)다. 동생이 언니 아래 있어 그 뜻을 따르니 일가(一家)가 편안히 다스려진다는 의미에서 가인(家人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火澤睽

위에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규는 ‘서로 등지다’·‘노려보다’·‘사팔눈’이라는 뜻이다. 불은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가고, 연못의 물은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. 서로 등져 어긋나 떨어지므로 규(睽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水山蹇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건(蹇)은 ‘절뚝발이’·‘나아가기 힘들다’·‘멈추다’라는 뜻이다. 산 위에 물이 있으니, 산을 넘으면 다시 물이 앞길을 막고 있다. 나아가기가 불편하니, 절름발이라는 뜻을 가진 건(蹇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雷水解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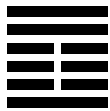
위는 천둥 우레[雷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해(解)는 ‘해결되다’·‘해소되다’·‘풀린다’라는 뜻이다. 천둥이 진동하여 비를 내리니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린다. 봄을 의미하므로, 해(解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41

山澤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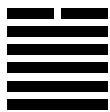
위는 산[山]이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손(損)은 ‘덜다’ · ‘줄이다’ · ‘손해보다’라는 뜻이다. 산 아래에 있는 저수지의 물은 들판을 적시기 위해 흘러가야 하므로, 잃는다는 의미에서 손(損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42

風雷益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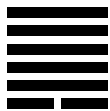
위는 바람[風]이고 아래는 천둥 우레[雷]다. 익(益)은 ‘더하다’ · ‘증가하다’ · ‘이익이다’라는 뜻이다.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니 비가 온다. 비는 골고루 만물을 적셔 유익함을 주기 때문에 익(益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43

澤天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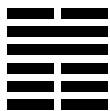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하늘[天]이다. 괘는 ‘물리친다’ · ‘결단한다’는 뜻이다. 아래 다섯 양효가 위에 있는 하나의 음효를 밀어내고 있는 상이니, 괘(夬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결단을 내릴 때다.



44

天風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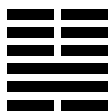
위는 하늘[天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구는 ‘우연히 만나다’ · ‘추하다’라는 뜻이다. 하늘 아래에서 바람이 부니 흩어졌던 구름이 모인다. 만난다는 뜻의 구(姤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 하나의 음이 다섯 개의 양을 떠받치고 있으니 추하다.



45

澤地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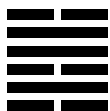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[地]이다. 취(萃)는 ‘모인다’라는 뜻이다. 땅위에 연못이 있으면 물이 모인다. 모인다는 뜻의 취(萃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46

地風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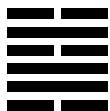
위는 땅[地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승(升)은 ‘위로 상승하다’ · ‘올라가다’ · ‘번성하다’라는 뜻이다. 땅 밑에 있는 바람이 위로 상승하고 있으니 상승한다는 뜻의 승(升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

47

澤水困
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곤(困)은 ‘부족하다’ · ‘곤궁하다’ · ‘괴롭다’ · ‘통하지 않는다’라는 뜻이다. 연못 아래에 있는 물이 빠지는 모습이다. 물이 부족하면 만물은 곤궁에 처하게 되므로, 곤(困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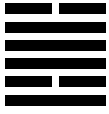


48

水風井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정(井)은 ‘우물’ · ‘두레박’을 뜻한다. 바람이 물밑에 있다. 바람이 깊은 곳까지 통하는 모습이니, 우물을 뜻하는 정(井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우물물을 퍼 올리려면 두레박이 필요하고 노고가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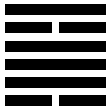
49



澤火革

위는 못[澤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혁(革)은 ‘바꾸다’·‘혁신하다’·‘혁명’의 뜻이다. 연못아래 불이 있다. 물이 끓어 증발하면 큰 변화를 하므로 혁(革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혁은 짐승 가죽이다. 가죽의 털을 벗기면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‘혁명’이라는 의미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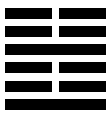
50



火風鼎

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바람[風]이다. 정(鼎)은 ‘발이 셋인 솥’·‘안정감’을 뜻한다. 불 밑에 바람이 불고 있는 상이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. 음식을 만드는 솥을 뜻하는 정(鼎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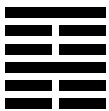
51



重雷震

위도 천둥 우레[雷]고, 겹쳐서 아래도 천둥 우레[雷]다. 뇌(雷)는 ‘천둥 우레’·‘몸시 두려워하다’·‘사나운 모양’·‘위엄을 떨치다’를 뜻한다. 우레가 크게 진동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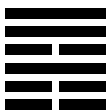
52



重山艮

위도 산[山]이고, 겹쳐서 아래도 산[山]이다. 산이 첩첩이 있으니 산(山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간괘는 하나의 양이 두 음 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이다.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있으므로 ‘머무르다’라는 뜻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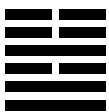
53



風山漸

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점(漸)은 ‘점점’·‘점차로 나아지는 것’을 뜻한다. 산 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점차로 만물이 깨어난다. 점차로 나아간다는 뜻의 점(漸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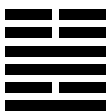
54



雷澤歸妹

위는 천둥 우레[雷]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귀매(歸妹)는 ‘정상적이지 못한 결혼’이라는 뜻이다. 위는 나이든 남자를 상징하는 진(震)괘고, 아래는 어린 여자를 상징하는 태(兌)괘다. 젊은 여자가 음란한 소질이 있어 중년 남자와 만나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뜻에서 귀매(歸妹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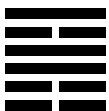
55



雷火豐

위는 천둥 우레[雷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풍(豐)은 ‘풍성하다’라는 뜻이다. 천둥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린 후 햇볕이 밝게 빛나는 모습이다. 만물이 성장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뜻에서 풍(豐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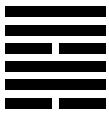
56



火山旅

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여(旅)는 ‘여행’·‘집과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’·‘방황하는 나그네’를 뜻한다. 태양이 산에서 떠서 산으로 지는 것은 나그네의 여정과 같으므로 여(旅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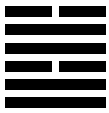
57



重風 巽

위도 바람[風]이고, 겹쳐서 아래도 바람[風]이다. 바람은 지상의 공간에 없는 곳이 없다. 그러나 실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. 손(巽)괘는 하나의 음이 두 양 아래에 있어 순종하고 따르는 형상이다. 유순하고 겸양하며 부드러운 의미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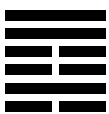
58



重澤 兌

위도 못[澤]이고, 겹쳐서 아래도 못[澤]이다. 태(兌)는 ‘즐거움’·‘온화한 분위기’를 뜻한다. 연못에 있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대지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물을 나누어준다. 베푸는 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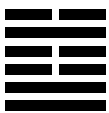
59



風水 渙

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환(渙)은 ‘흩어지다’·‘풀어지다’라는 뜻이다. 물위에서 바람이 분다. 물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므로, 환(渙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 겨우내 얼었던 물이 봄바람에 녹아 풀어진다.

60



水澤 節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못[澤]이다. 절(節)은 ‘절도’·‘규칙이나 제한’·‘절약’을 뜻한다. 연못 위에 물이 가득하니 물이 많으면 넘치게 하고 모자라면 흐르지 못하게 한다. 절도를 뜻하는 절(節)을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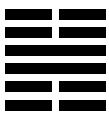
61



風澤 中孚

위는 바람[風]이고, 아래는 연못[澤]이다. 중부(中孚)는 ‘어미 새가 알을 품어 따뜻하게 한다’는 뜻이다. 가운데 두 음효는 노른자이고 바깥 양효는 흰자와 껍데기를 나타내니 알의 모양을 뜻한다. 상괘와 하괘가 입을 맞춘 듯 대칭을 이룬다. 한 몸으로 결합되어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는 상이므로, 중부(中孚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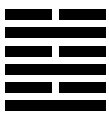
62



雷山 小過

위는 천둥 우레[雷]이고, 아래는 산[山]이다. 소과(小過)는 ‘조금 지나치다’라는 뜻이다. 상괘와 하괘가 등을 지고 있다. 음이 양에 비해 약간 많다는 의미에서 조금 지나치다라는 뜻의 소과(小過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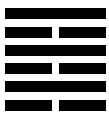
63



水火 既濟

위는 물[水]이고, 아래는 불[火]이다. 기제(既濟)란 ‘일을 이미 성취했다’·‘이미 물을 건넜다’·‘어려움에서 이미 벗어났다’라는 뜻이다. 물은 위에 있고 불은 아래에 있으니 서로가 목적인 곳으로 건넜다는 의미에서 기제(既濟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

64



火水 未濟

위는 불[火]이고, 아래는 물[水]이다. 미제(未濟)란 ‘아직 건너지 않았다’·‘미완성’을 뜻한다. 불과 물이 각기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미제(未濟)를 괘 이름으로 하였다.